

지역 소식 통

고창마켓, 지리적표시제
프리미엄 '고창수박' 출시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이 오는 28일부터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 출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고창수박'은 먼저 1차에서 유기물 사용, 토양검정, 수질 등을 심사하고, 2차로 농약잔류검사, 병해충관리 등을 심사하여 프리미엄 고창수박 생산자를 선별한다.

선발된 생산자는 정식부터 수확까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포장과 재배를 관리받게 된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 속에 수확된 수박은 비파괴선별기를 통과하여 중량은 8kg 이상 당도는 12브릭스 이상된 수박만 프리미엄 고창수박으로 인정받아 택배용 박스에 동봉하여 판매한다.

앞서 고창수박은 지난해 9월 20일 지리적표시제 116호로 등록됐다.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당부

고창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에는 소화기 1대 이상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초기진압과 조기 대피에 성공한 사례가 많아,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주택 화재는 대부분 취약 시간에 발생하고, 발견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하는 화재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모든 가정에 설치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드론산업 지역거점 도약한다'

고창군, 드론통합지원센터 일정에 맞춰 순항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착공식 기념사 중)"

고창군 드론산업의 중추적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성내면 조동리 145번지 일원)'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착공식 이후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되며, 총면적 8만9560㎡(약2만7000평) 규모로 조성된다. 드론 자격시험, 교육, 비행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활주로와 실기시험장 4면이 함께 조성되며,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 완공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를 맡게되며, 연간 1,000여명의 교육생과 약 1만5,000여명 의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드론 관련 산업의 확장성과 연계할 경우, 고창군은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협의체(위원장 김진열)'를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개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요 사업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이 생활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생활현장에서 해법 찾다

이학수 정읍시장, 시설 개선 · 안전 강화 방안 모색

이학수 정읍시장이 생활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왕술발 공동체정원 △칠보물레마 유원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지 △석탄사 요사채 등 주요 생활·문화·복지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생활밀착형 점검을 실시했다.

첫 방문지인 왕술발 공동체정원에서는 "지압길 위치를 운동기구 앞으로 조정하고, 예정지와 무대 앞 공간에는 작은 텃밭을 조성해 시민 건강과 공동체 교류를 동시에 촉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압길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주민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마련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찾은 칠보물레마 유원지에서는 이용객,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강조하며 "석재 바닥 장식은 모두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하고, "바디슬라이드 아래 바닥은 오래된 페인트로 색감을 정리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지에서는 자연 지형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로를 경계로 앞뒤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해 입체적 공간을 만들고, 기존 감나무는 베지 말고 전지 작업 후 조경수로 활용하라"며 "있는 자원을 지키고,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석탄사 요사채에서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협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공간일수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종교시설도 공공안전망 안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고향사랑기금으로 '새 단장'

노후 시설 보강 · 집기 교체

정읍시 청소년들의 방과 후 보금자리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카)가 고향사랑기금의 따뜻한 지원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공간으로 거듭난다.

시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방카의 노후 시설 보강·집기 교체사업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시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카 각 교실의 낡은 책상과 의자, 수납장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교육용 컴퓨터, 방난방기 등 학습에 필요한 집기를 최신 사양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노후가 심했던 바닥과 천장 벽 등을 보강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지난해 하반기에 청소년수련

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정읍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참여해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 표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거에 대

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청 공식 누리집과 SN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사전투표·본투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거점에 현수막도 설치해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부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5층 대회의실, 부안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빈틈없는 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체계를 다지고 전반적인 조치 능력을 향상하고자 치뤄지는 범국가적 훈련이다.

올해는 전국 336개 기관이 2회차로 나누어 훈련을 실시한다.

1회차 훈련에 나선 부안군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훈련 참여자들은 재

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지시를 수행하는 훈련에 임했다.

특히 훈련에 함께한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육군 8038부대 1대대,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KT, 부안군 자율방재단 부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부안군협의회 등 다수의 기관·기업·민간단체가 하나 된 움직임으로 훈련의 목표를 극대화했다.

군은 훈련을 통해 도출한 각종 사항들을 철저히 분석해 실제상황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